

해외시장동향	일본	도쿄 aT
--------	----	-------

1. 현지 시장 포커스

□ 이토츠후(伊藤忠) 식품도매 4사 통합

- 업계 3위의 일본악세스와 패밀리코퍼레이션, 이토츠후레츠, 유니버설푸드 4사 합계 매출액은 약 1조 5천억엔에 달하며 빠르면 내년 중에 통합을 실시할 예정. 료쇼쿠 등 미츠비시상사 산하 4개사도 11년 중에 경영통합 협의예정 등 식품 도매업체의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일본 악세스가 모체가 되고 자회사화, 합병 사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3사를 흡수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악세스는 냉동과 냉장 등 저온물류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이토츠후레츠는 육류와 어류, 야채 등 신선식품, 유니버설푸드는 외식체인에 판로망을 가지고 있어 보완효과 기대. 이토츠후 그룹의 패밀리마트 물류업무를 하고 있는 패밀리 코퍼레이션도 참가함
- 편의점 최대 업체인 세븐일레븐재팬과 거래가 많은 강점을 고려하여 아시아진출을 가속화 하는 중임. 일본악세스는 이토츠후와 공동으로 중국의 식품도매업계에 진출하였으나 일본소매업 진출 방면 등으로 사업을 확장코자 함. 이번 통합으로 업계 최대인 코쿠부를 넘어서게 되나, 또한 료쇼쿠 등 미츠비스 산하 4개사 통합시 매출액이 2조 2천억에 달하게 되어, 일본악세스 등 4개사는 2위가 될 전망

□ 송이버섯 대홍작 (전년대비 3.5배 가격 상승)

- 가을 미각을 대표하는 일본산 송이버섯이 물량부족. 무더위와 강수량 부족으로 주요산지에서의 공급은 현지점에서도 극히 물량이 적은 상황으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로 가장 수확량이 적어 시세가 높았던 작년을 뛰어넘는 시세과열 상태임. 국산의 출하는 보통 9월 중반부터 본격화하지만 계절상품인 만큼 출하가 늦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급 감소됨에 따른 영향이 큼. 국내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품 판매가 호조인 반면 일본산은 올해도 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동경도중앙도매시장 츠키지시장 내에 있는 동경시티청과는 올해 총 입하량을 작년 4.8톤의 약 절반인 2.5톤으로 전망. 물량부족의 영향으로 동 시장에서 9월1일-15일의 평균가격은 1kg에 8만1천엔으로 전년동기비 3.5배의 수준
- 송이버섯의 거래는 서리가 내려 물량이 없어지는 11월까지 단기간 이루어지며, 8월10일 홋카이도산이 첫 입하하였으나 무더위의 영향으로 공급이 끊겼다가 9월1일-15일의 입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불과 3.4%에 그쳤음. 이와테, 나가노의 주요산지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9월 후반 이후도 가을 잔서와 강우량 부족으로 송이버섯 공급이 극히 줄어들 전망임
- 한편, 수입 송이버섯은 중국산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 1,500톤 전후로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산은 고급식당 등의 업무용, 수입산은 슈퍼나 백화점에서의 판매로 대부분 나뉘어져 있음. 이상기온에 의한 입하량 대폭 감소로 고가시세가 지속될 전망임

자료원: 일본농업신문 9.21일자

2. 일본의 현지 유통시장 동향

□ 주요도매시장 채소류 동향 (2010년 9월 중순)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합계			전년 동기 대비	
	도매수량	도매가격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야채 총계	88,277	21,512,289	244	82	123
무	7,867	918,981	117	80	129
당근	5,222	876,894	168	80	130
배추	7,221	621,043	86	94	91
양배추	11,200	1,077,562	96	93	103
시금치	444	464,572	1,046	49	174
파	2,621	1,214,973	464	77	156
부추	401	330,655	825	75	184
아스파라거스	246	226,588	923	84	110
(수입산)	41	39,401	965	58	127
브로콜리	869	350,636	403	87	100
(수입산)	275	90,478	329	91	112
양상추	5,593	997,047	178	87	119
오이	4,214	1,440,227	342	78	188
단호박	3,476	404,732	116	98	82
(수입산)	0	20	2,033	5	1,680
가지	2,168	767,812	354	73	156
토마토	4,161	1,966,888	473	84	131
미니토마토	793	780,704	985	86	133
피망	1,441	580,900	403	80	147
파리고추	112	107,498	957	70	163
풋콩	331	258,578	781	66	121
감자	6,591	930,268	141	79	127
양파	9,684	1,042,346	108	84	98
(수입산)	438	33,841	77	83	100
마늘	200	147,582	737	81	137
(수입산)	103	32,025	310	78	171
표고버섯	432	407,147	943	83	103
(수입산)	23	8,759	387	121	103
팽이버섯	979	165,881	169	101	70
(수입산 야채총계)	2,040	861,820	422	103	91

□ 주요도매시장 과일류 동향 (2010년 8월 중순)

(단위 : 톤, 천엔, 엔/kg, %)

구분	주요도매시장			전년 동월대비	
	도매수량	도매금액	단가	도매수량	도매가격
과실 총계	27,259	9,719,197	357	70	133
국산과실 합계	19,726	8,381,957	425	64	146
밀감	2,288	874,016	382	59	135
아마나츠 밀감	1	92	87	-	-
기타 밀감	159	63,780	402	59	164
사과 합계	4,547	1,269,563	279	73	152
(츠가루)	3,788	1,062,561	281	71	157
(조나골드)	0	172	420	357	147
(후지)	3	749	294	40	95
일본 배 합계	5,764	2,093,900	363	54	180
(풍수)	2,395	886,374	370	34	185
(행수)	1,907	652,215	342	309	157
(이십세기)	1,282	483,065	377	57	196
(신고)	34	11,921	349	10	195
감 합계	162	103,466	638	10	184
(단감)	22	11,176	498	7	160
(땡감)	140	92,290	661	11	186
복숭아	888	426,618	480	126	118
포도 합계	3,061	2,230,809	729	79	125
(거봉)	1,238	881,727	712	73	123
밤	469	253,192	540	67	116
딸기	11	20,770	1,946	59	85
메론 합계	1,079	437,979	406	74	105
(온실 메론)	475	228,379	481	98	93
(안데스 메론)	8	2,334	283	1,472	106
수박	411	113,622	276	64	190
수입과실 합계	7,533	1,337,240	178	93	101
(바나나)	4,233	532,418	126	91	93
(오렌지)	584	108,919	186	97	110
(수입키위)	518	233,816	451	110	101
(수입멜론)	185	24,762	134	136	101

3.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 농림수산물 수입개요

- 10년 1-7월농림수산물 수입액 : 4조1,285억엔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
 - 국가전체 수입액(34조8,870억 엔)의 약 11.8%점유
 - 비중별: 농산물(2조 1,368억 엔, 51.7%) > 수산물(7,482억 엔, 18.1%)
축산물(7,141억 엔, 17.2%) > 임산물(5,276억 엔, 12.7%) 순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실적(금액기준)>

(단위: 천엔, %)

구 분	2010년1-7월		전년 동기 대비	2009년1-7월
	금액	점유비		
국가 전체	34,887,093,363	-	22.1	28,562,721,411
농림수산물	4,128,519,575	100.0	4.1	3,965,345,893
농 산 물	2,136,896,609	51.7	4.9	2,038,034,419
축 산 물	714,105,603	17.2	3.1	692,382,471
임 산 물	527,676,531	12.7	10.0	479,500,766
수 산 물	748,238,972	18.1	-0.8	754,230,925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성 무역통계

□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입동향(1~7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	1~7월 누계	전년 동기	전년 동기 대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박	18,098	12,227	48.0	한국	14,874	미국	3,224	-	-
멜론	1,888,840	1,968,012	-4.0	멕시코	1,685,041	한국	125,771	미국	44,579
밤	432,524	404,850	6.8	중국	410,737	한국	13,163	이탈리아	8,624
키위	13,280,322	11,751,061	13.0	뉴질랜드	13,156,102	칠레	123,945	한국	275
딸기	589,033	689,004	-14.5	미국	517,249	한국	71,397	핀란드	387
매실조제품	1,576,450	1,367,506	15.3	중국	1,570,229	대만	4,916	한국	1,305
마늘	1,726,915	925,730	86.5	중국	1,703,276	한국	11,702	아르헨티나	6,997
결구양배추	475,521	390,302	21.8	중국	271,010	한국	138,887	대만	64,588
기타유채속	46,150	38,697	19.3	중국	41,479	한국	2,224	뉴질랜드	1,960
오이	4,661	7,592	-38.6	한국	4,661	-	-	-	-
가지	8,581	41,235	-79.2	한국	8,581	-	-	-	-
송이버섯	607,111	495,837	22.4	중국	602,849	멕시코	2,637	한국	1,625
기타버섯	74,816	52,396	42.8	한국	13,579	이탈리아	12,780	프랑스	12,589
피망	5,617,434	5,159,000	8.9	한국	3,703,941	뉴질랜드	1,233,113	대만	673,352
파프리카	5,414,628	5,008,749	8.1	한국	3,505,543	뉴질랜드	1,231,688	대만	670,369
건표고	4,149,294	3,323,523	24.8	중국	4,015,500	한국	127,323	홍콩	6,245

자료: 일본 농림수산물성

□ 농림수산물 수입동향('10년도 7월) 수입액

- '10년도 1-7월의 일본국가전체 수입액(34조8,870억엔)중에서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4조 1,285억 엔으로 수입액 전체의 약 11.8%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 2010년 7월 동향

- 2010년 7월 야채수입량은 전년동월비 107%인 197,865톤. 「신선야채」가 동 115%인 48,591톤, 「냉동야채」는 동108%인 75,793톤, 「염장등 야채」는 동89%인 6,697톤, 「건조야채」는 동94%인 3,739톤, 「식초 조제야채」는 동101%인 2,990톤, 「토마토가공품」은 동103%인 23,782톤, 「기타 조제야채」는 동109%인 35,474톤, 「기타」는 동32%인 798톤이며 신선야채, 냉동야채, 식초 조정야채, 토마토가공품, 기타 조정야채 등은 전년동월비 증가하고 염장등 야채, 건조야채는 전년동월비 감소

□ 신선야채의 동향

- 수입량이 증가한 주 품목은 호박이 전년동월비 434%인 173톤, 결구양배추가 동 219%인 485톤, 토란이 동185%인 205톤, 당근 및 순무가 동178%인 7,326톤, 파가 동140%인 4,290톤, 양파가 동115%인 19,840톤

당근 및 순무는 당근의 주산지인 홋카이도나 아오모리현이 기후불순, 많은 비로 입하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전년을 상회한 것 등으로 전년동월비 증가. 당근 및 하부의 국가별 수입량은 제1위 중국 6,783톤, 제2위 뉴질랜드 426톤, 제3위 호주 111톤

양파는 부현산이 기후 불순의 영향으로 적은알 경향을 보여 입하량이 부족하였다. 양파의 수입량은 13개월 연속하여 전년동월비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수입량은 제1위가 중국 192,886톤, 제2위가 뉴질랜드 478톤, 제3위가 호주 28톤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 품목은 멜론이 전년동월비 63%인 1,143톤, 생강이 동76%인 1,247톤, 우영이 동87%인 3,481톤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 냉동야채의 동향

- 수입량이 증가한 주 품목은 시금치등이 동144%인 2,290톤, 강낭콩등이 동135%인 2,632톤, 감자가 동108%인 28,257톤으로 나타남.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 품목은 생강이 동77%인 2,291톤, 우영이 동92%인 544톤, 풋콩이 동96%인 8,529톤

「염장 등 야채」는 전년동월비 89%인 6,697톤으로 전년비 감소하였음. 염교가 동 156%의 84톤, 생강이 동115%인 1,352톤으로 전년동월비 증가한 반면에 우영이 동 46%의 66톤, 소 가지가 동74%의 86톤, 오이가 동88%인 1,652톤으로 전년비 감소

자료원: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농야채 수급부 조사 정보부

□ 토마토의 수입동향

- 7월 수입수량은 191톤으로 전년 동월 비 47톤(20%) 증가함
수입금액은 52백만 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273엔으로 전년 동월보다 30엔 상승함
주요수입국 비율은 미국이 43%, 한국이 39%, 캐나다 18%로 나타남
- 7월까지의 수입수량은 1,816톤(전년동기비 186%), 수입액은 6억84백만엔(동247%)으로 나타남
 - 작년도 상반기는 잔류농약 검출로 수입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금년도 수입회복
 - 한국산 토마토는 대부분 신선형태로 수입되며, 일본의 안전성강화, 국내 수요증가 등에 따라 감소경향
 - 수입실적 : ('09.1~7) : 147,529엔 → ('10.동기) : 136,427천엔(7.5% ↓)

□ 가지의 수입동향

- 7월의 수입물량은 0톤으로 전년 동월보다 7톤(100%)감소하였음.
- 7월까지의 수입물량은 34톤(전년 동기 비 18%), 수입금액은 9백만 엔(동 21%)으로 나타남
 - 한국산 가지는 일본의 안전성강화, 일본의 야채 소비량 감소에 등으로 점진적으로 수입 감소경향
 - 수입실적 : ('09.1~7) : 41,235천엔 → ('10.동기) : 8,581천엔(79.1% ↓)

□ 파프리카 수입동향

- 7월의 수입량은 3,084톤으로 전년 동월 비 247톤(9%) 증가하였음. 수입액은 7억64백만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248엔으로 나타나 전년 동월보다 3엔 증가함.
주요수입국은 한국이 87%, 네덜란드가 13%로 나타남
- 7월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주요수입국 비율은 한국 84%, 화란 16%, 8월은 화란이 64%, 한국이 36%로 나타남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10년 7월~ 8월의 외국산 입하상황>

구분	'10년 7월			'10년 8월		
	상	중	하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180	129	125	111	101	113
일본산 등 입하량(톤)	36	35	52	60	38	37
외국산도매가격(엔/kg)	310	314	395	396	433	471
평균도매가격(엔/kg)	331	360	416	398	444	479

- 7월까지의 수입물량은 14,735톤(전년 동기 비 101%), 수입액은 54억15백만엔(동108%)
 - 한국산 파프리카는 단가회복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다소 상승
 - 수입실적 : ('09.1~6) : 3,346백만엔 → ('10.동기) : 3,505백만엔(4.7% ↑)

□ 딸기 수입동향

- 7월 수입량은 463톤으로 전년동월보다 63톤(12%)감소함. 7월까지의 수입가격은 3억94백만엔으로 1kg당 평균 CIF가격은 851엔으로 전년동월보다 32엔 하락
- 주요수입국은 미국이 94%, 한국이 6%로 나타남.

<동경도중앙도매시장의 2010년 7월~8월의 외국산 입하상황>

구분	'10년 7월			'10년 8월		
	상	중	하	상	중	하
외국산입하량(톤)	3	3	5	3	4	5
일본산 등 입하량(톤)	38	11	13	9	6	5
외국산도매가격(엔/kg)	1,172	1,155	1,089	1,131	1,083	1,159
평균도매가격(엔/kg)	1,207	1,296	1,823	1,459	1,659	1,792

- 7월까지의 수입물량은 705톤(전년 동기 비 89%), 수입액은 5억89백만엔(동85%)임
 - 한국산 신선딸기는 주로 케익 장식용, 후식용으로 사용되나 일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수입하락
 - 수입실적 : ('09.1~7) : 102,756천엔 → ('10.동기) : 72,077천엔(29.8%↓)

□ 양배추 등 유채 속 야채

- 7월 수입량은 492톤으로(양배추: 485톤, 배추: 0톤, 기타 유채 속: 7톤) 전년 동월 비 267톤(119%) 증가. 수입액은 19백만 엔, 1kg당 평균 CIF가격은 38엔으로(양배추: 25, 기타 유채 속: 980) 전년 동월 비 4엔 하락함. 양배추의 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100%임
- 식물검역 통계에 의하면 양배추의 8월 검사실적수량은 968톤(전년 동월 비 나타남 8월의 주수입국 비율은 중국이 95%, 한국이 5%로 나타남
- 배추의 수입식물 검역검사 동향

식물검역통계에 의하면 8월 검사실적수량은 18톤(전년 동월 비 4.079%)으로 나타남

주요 수입국은 모두 중국이었음.
- 양배추 등 유채속의 7월까지의 수입수량은 12,528톤으로(전년 동기대비 110%), 수입액은 5억22백만 엔(동 121%)으로 나타남

□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동향(1~7월 금액누계)

(단위 : 천엔, %)

품목	1~6월 누계	전년 동기	전년 대비	1위		2위		3위	
	금액	금액	비율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계육 조제품	76,907,399	75,950,227	1.3	태국	41,661,391	중국	34,735,731	한국	249,545
정제당	468,367	148,826	214.7	브라질	341,934	한국	73,417	과테말라	24,301
츄잉껌	95,120	94,407	0.8	중국	36,953	한국	19,055	태국	15,648
쿠키, 비스킷 크래커	1,284,652	976,571	31.5	미국	924,114	말레이시아	213,585	한국	93,057
알콜음료	94,522,542	90,411,428	4.5	프랑스	35,166,947	한국	10,909,231	미국	8,861,437
쇼트닝	142,862	150,095	"「4.8	말레이시아	92,458	한국	37,847	인도네시아	12,557
조제 식료품	48,165,314	48,249,359	"「0.2	미국	11,733,802	중국	6,620,449	한국	6,302,306
곤약	1,169,846	1,121,671	4.3	중국	1,025,179	인도네시아	75,465	한국	64,234
인삼	704,672	1,004,965	"「29.9	중국	664,594	대만	37,034	한국	2,801

□ 가공식품의 수입동향(10.7월)

- 가공식품(종합)의 7월 수입수량 지수는 103.9로 전년 동월 대비 5.6%로 약간 상승함. 가공식품(주류 제외)은 101.2로 전년 동월 대비 4.9%로 약간 상승함.

* 수입수량 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산출한 수치임.

- 가공식품(종합)의 7월 수입액은 1,19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로 약간 증가하였고, 주류를 제외한 가공식품은 1,03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로 약간 증가하였음
- 부문별로 보면 당류가 16%이상 대폭 증가하였고 축산가공품, 과자가 11-16% 증가하였으며 기타조제식료품, 주류가 3-6% 증가하였음. 한편으로 음료가 16%이상 대폭감소하였고 수산가공품, 조미료가 1-3% 감소하였음.

□ 일본 절임류 및 김치 생산동향

(단위: 천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년	2010년 7월
절임류	1,176	1,186	1,184	1,131	1,032	972	974	956	950	910	513
김치	320	351	386	379	313	284	252	243	237	209	114
(%)	(27.2)	(29.6)	(32.6)	(33.6)	(30.3)	(29.2)	(25.8)	(25.4)	(24.9)	(23.0)	(22.2)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 일본 절임류 품목별 생산량

(단위: 톤)

품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7	증감율
절임류 전체	1,032,877	972,947	974,809	956,836	950,164	910,051	513,436	-3.4
소금절임류	149,450	129,279	146,827	135,871	130,707	132,068	76,071	0.1
초절임류	105,372	94,359	102,450	99,549	100,083	99,190	56,946	-0.4
아사즈케류	148,031	149,082	154,470	158,010	155,478	155,672	88,289	-3.8
쌀겨절임류	74,440	73,536	80,236	81,094	85,151	82,978	47,882	-2.6
간장절임류	496,491	466,037	433,302	425,309	423,467	389,857	216,279	-6.0
(김치)	(313,410)	(284,914)	(252,123)	(243,028)	(237,937)	(209,235)	114,367	-7.1
주박절임류	35,669	37,665	34,983	34,508	35,099	32,310	18,371	4.3
된장절임류	9,047	8,044	7,974	8,008	7,632	7,450	4,133	-2.6
기타절임류	14,377	14,945	14,567	14,486	12,546	10,527	5,463	-3.9

자료 :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주) 쌀겨절임류: 단무지포함

□ 일본의 김치 생산량 및 한국산 김치 수입량

(단위 : 톤, 비중%)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년 1-7
합계	316,067	274,749	265,113	261,001	233,358	128,959
일본산	284,914	252,123	243,028	237,937	209,235	114,367
한국산	31,153 (9.9)	22,626(8.3)	22,085(8.4)	23,064(8.9)	24,123(10.3)	14,592(11.3)

자료: (사)식품수급연구센터, 일본 재무성 통계자료

* 세번 2005.99-919, 2005.99-999는 기타 절임류로서 한국산은 대부분 김치이나, 타국산은 김치외 다량의 기타절임류 포함되어 있어 통계상 타국산 순수 김치시장 규모 추정곤란

□ 한국산 김치 수입실적

(단위: 톤, 백만엔, 엔/kg)

연도	수입량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입단가
1997	10,826	7.9	4,580	11.0	423
1998	15,015	38.7	5,576	21.7	371
1999	23,905	59.2	8,931	60.2	374
2000	22,260	-6.9	8,410	-5.8	378
2001	22,197	-0.3	8,092	-3.8	365
2002	27,351	23.2	9,486	17.2	347
2003	30,854	12.8	10,349	9.1	335
2004	32,202	4.4	10,435	0.8	324
2005	31,153	-3.3	9,817	-5.9	315
2006	22,626	-27.3	7,468	-23.9	330
2007	22,085	-2.3	7,522	0.7	340
2008	23,064	4.4	7,940	5.5	344
2009	24,123	4.6	7,530	-5.2	312
2010년1-7월	14,592		4,568		313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주의: 순수 한국산 김치의 수입통계는 세분되고 있지 않아 세번 2005.99-919, 2005.99-999를 단순 합산한 수치임

□ 일본의 절임류(김치포함) 수입동향

(단위 : 톤, 백만엔)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7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33,661	26,308	113,433	22,455	120,616	21,709	77,185	13,867
한국	22,085	7,522	23,064	7,940	24,123	7,530	14,592	4,568
기타국	111,576	18,786	90,369	14,515	96,493	14,179	62,593	9,299

자료: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4. 경제동향

□ 경기동향

- 경기는 계속하여 회복되고 있으며 자율적 회복기반이 정비되고 있으나 실업률이 고 수준에 머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수출은 요즈음 둔화되고 있으며 생산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음
 - 기업수익은 개선되고 있음.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 기업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전망은 신중한 견해
 - 고용정세는 여전히 어려우나 요즈음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개인소비는 회복되고 있음
 - 물가동향을 종합해 보면 완만한 디플레 상황에 있음
- 향후전망 : 당분간 어려운 고용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해외경제의 개선과 각종의 정책효과 등을 배경으로 기업수익의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의 자율적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한편, 해외 경기하락 염려, 환율·물가의 변동 등으로 경기하락 위험요소가 강해지고 있음. 또한 디플레영향과 고용정세의 악화우려에도 주의가 필요함

□ 정책동향

- 일본정부는 일본경제를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올리고 동시에 디플레를 종결시키도록 정책을 운영.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긴요한 과제로 삼아 일본은행과 일체가 되어 강력하고 종합적인 정책노력을 시행할 것임

□ 소비·투자 등 수요동향

- 개인소비는 회복되고 있음. 설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음. 주택건설은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보합세를 보임. 공공투자는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출은 둔화되고 있으며 수입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무역서비스 수지흑자는 보합세

□ 물가와 금융정세

-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다소 하락 계속
- 주가는 9,300엔대에서 8,800엔대로 하락한 후 9,000엔대까지 상승하고 있음. 엔/달러 환율은 85엔대에서 83엔대까지 엔화상승 기조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음

자료: 2010년 9월10일 내각 부 발표